

근대 중국의 서구 심리학 수용의 轉變*

-무술변법 전후의 심리학 내용과 역어 변화를 중심으로-

이대승**

< 목 차 >

1. 머리말
2. 무술변법 이전, 철학적 심리학 수용과 심리학 역어의 등장
3. 무술변법 이후, 근대 신심리학과 역어 ‘심리학’의 수용과 정착
4. 맺음말

【요약문】 본 글은 무술변법 전후의 근대 중국의 서구 심리학 수용 양상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무술변법 이전 중국에서는 일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정신철학으로서의 심리학이 수용되고, 심리학 용어는 ‘靈魂學’ ‘心靈學’ 등을 제외하면 대개 ‘心性學’ ‘性學’ ‘心學’ 등과 같이 전통 유교 사상에 바탕을 둔 어휘들이 대역어로 등장했다. 하지만 무술변법 전후로 Kangyuei와 량치차오가 일본어 역어 ‘心理學’ 용어를 수용하고 일본 서적의 번역을 추동한 이후, ‘心理學’이 ‘psychology’의 대역어로 널리 사용되고 일본을 매개로 서구 근대의 과학적 신심리학이 다양한 방면에서 수용되어 널리 전파된다.

결론적으로 일부 선교사들에 의해 정신철학으로서 심리학이 수용·전파되고 주로 전통 유교 개념에 바탕을 둔 대역어가 사용되던 흐름은 무술변법 이후 일본의 역어 ‘심리학’이 수용되어 정착되고 일본을 통해 서구 근대 신심리학이 전면적으로 수용되고 전파되는 흐름으로 변화한다.

【주제어】 心理學, 정신철학, 근대 신심리학, 번역어, 무술변법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1. 머리말

한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심리학은 일제강점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사립전문대와 일본인들이 점유하던 제국대학에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사립전문학교에서는 기독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 온 미국심리학이, 경성 제국대학에서는 독일의 심리학이 주로 가르쳐졌다.¹⁾ 1910년 한일병합 이전 대한제국기의 서구 심리학 수용 양상은 아직 명료치 않다. 현재 알려진 내용은 일본의 심리학 서적을 번역한 한국 최초의 교육용 심리학 교과서 『心理學教科書』가 1907년 출간되었으며,²⁾ 이화학당 고등과교육과정에 심리학 강좌가 1908년에 편성되어 있었으며, 전문학교 수준에서 심리학이 1907~8년경에 강의되기 시작했다는 사항 정도이다.³⁾

동아시아 전통에서 정신 혹은 마음의 이치에 대한 탐구는 주로 전통 유교(특히 성리학)의 심학적 사유를 통해 이루어졌다. 서구의 심리학은 동양 학문과 학적인 체계와 방법론 등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동아시아에 수용될 때 정신과 마음에 대한 논의라는 측면에서 전통 유교의 심학적 사유와 상호 교섭하며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서구 심리학이 일본에 처음 수용될 때 ‘心理學’, ‘性理學’과 같이 유교 전통의 어휘가 대역어로 사용된 점은 그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⁴⁾

하지만 서구 심리학이 수용될 때 번역의 측면에서 유교 전통의 어휘가 사용되는 데 그치고, 현대 사회에서 정신과 마음에 대한 학문은 서구의 심리학이 자리 하고, 동아시아 유교 전통의 심학적 사유는 단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심리학자들은 한국인의 토착적 심리를 고찰하기 위해 전통의 사유 속에서

1)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50년사』, 1996, 5쪽.

2) 『심리학교과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최근에야 연구되었다. 심의용에 따르면, 이 책은 李容弼이 설립한 출판사 普成館에서 1907년 7월 30일에 발행한 한국 최초의 교육용 심리학 교과서이다. 이 책은 한성중학교 심상과 1회 졸업생이고 대한제국관원으로 관립 한성고등학교 교관이었던 金夏鼎이 일본의 심리학 서적들을 취사선택하여 번역했다. 상세한 사항은 심의용, 「식민지 시기 심리학교과서와 계몽」, 2020 참조.

3)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50년사』, 1996, 6쪽.

4) 조셉 헤이븐의 *Mental Philosophy*가 일본에 수용될 때 니시 아마네(西周)는 ‘mental philosophy’와 ‘psychology’를 각각 ‘心理學’, ‘性理學’으로 번역했다. 이후 ‘心理學’ 용어가 ‘psychology’ 대역어로 정착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대승,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인의 서구 심리학 수용-니시 아마네와 연용정의 ‘mental philosophy’·‘psychology’ 번역을 중심으로-」, 2020 참조.

심리학의 사유를 재고찰하거나 현대 서양심리학의 부족한 점을 동양 유학사상에 서 찾으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⁵⁾

현대의 탈유교문화 사회에서 서구 심리학의 한국적 적용 혹은 전통 유교 사상과의 만남을 논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측면에서 동아시아에 서구 심리학이 처음 수용될 당시 지식인들의 반응에 대한 고찰은 중요하다.

특히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에 서구 심리학이 들어올 때 당시 전통 유교 문화에 속한 지식인들의 반응은 서구 심리학과 동양 심학과의 조우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탐구 대상이 된다. 일례로 1910년대 북경에서 활동했던 전병훈의 경우 『精神哲學通編』(1920)에서 서구 심리학과 동양의 심학을 융합한 자신만의 심리철학을 제시한 바 있다.⁶⁾ 이같은 내용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동아시아 지식인의 심리학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구 심리학이 유교 심학 전통이 자리한 동아시아에 수용되는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중국의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⁷⁾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전통 유교문화의 장에서 탈유교문화의 장으로 변화하는 근대 중국의 사례는 동아시아에서 유교 문화 전통이 서구 심리학 지식을 접했을 때 구체적 수용과 대응 양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근대 중국에서의 서구 심리학 수용사는 중국 심리학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축적되었다. 특히 『心理學通史 第2卷: 中國近現代心理學史』와 『中國近代心理學史(1872-1949)』에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심리학사가 잘 정리되어 있다.⁸⁾

5) 한국석, 「한국적 심리학의 전개 현황과 과제」, 2002; 한덕웅, 『한국유학심리학』, 2003 등 참조.

6) 전병훈에 대해서는 2000년대 이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출간된 서적으로는 『정신철학통편』 일부를 번역한 윤창대, 『정신철학통편』, 2004, 그리고 전병훈의 철학을 상세히 다룬 김성환, 『우주의 정오』, 201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박연규에 따르면, 비교철학은 “나의 문제와 타자와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과정”(1쪽)으로, 비교철학을 할 때 “자신이 더 우월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과 “비교의 대상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23쪽)이 필요하다. 전병훈은 동양과 서양에 대해 우월을 가리지 않고 양자를 열린 마음으로 살핀다는 점에서, 박연규가 말한 비교철학을 행한 철학자라 할만하다. 박연규, 「동서철학인가, 비교철학인가-연구방법론의 양식성과 내재성-」, 2006 참조.

7) 동아시아의 심리학 수용 양상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로는 심의용, 「식민지 시기 심리학교과서와 계몽」, 2020 논문과 이대승,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인의 서구 심리학 수용-니치 아파네와 연용정의 ‘mental philosophy’·‘psychology’ 번역을 중심으로-」, 2020을 들 수 있다.

8) 근대 중국의 심리학 연구는 초창기 趙利如에 의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楊鑫

『心理學通史 第2卷』에서는 서구 심리학 사상의 초기 수용이 16~17세기부터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고, 중국 근대심리학 사상은 1840년부터 1919년 5·4운동까지의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그리고 근대심리학 수용의 발단과 관련하여 19세기 중엽 초기 미션스쿨에 의해 심리학이 전파되고, 일본에 의해 서구 심리학이 전파되는 과정을 서술한다.⁹⁾ 『中國近代心理學史(1872-1949)』에서는 ‘psychology’ 역어로서 ‘心理學’ 용어가 확립된 시기를 1902년으로 파악하고 이 해를 기점으로 그 이전(1872~1902)을 서구 심리학의 초기 수용 시기, 그 이후(1902~1918)를 중국 근대심리학의 학과 창립 초창기로 구분하여 근대 중국의 심리학사를 서술한다.¹⁰⁾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근대 중국 심리학사의 일반사항은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되, 심리학 수용 변화가 무술변법(1898) 시기를 기점으로 변화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그 전후의 심리학 수용의 변화 양상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 근대 사상사의 맥락에 착안한 시각이다. 중국 근현대의 서구 사상 수용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어난 무술변법 전후로 그 양상이 크게 바뀐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서구 심리학은 철학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기에, 사상사적 맥락 속에서 심리학 수용을 조망할 때 그 변화 양상을 좀 더 뚜렷이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당시 수용된 서구 심리학의 양상을 보이기 위해, 해당 시기의 심리학 서적과 ‘psychology’ 역어를 분석을 위한 중심 재료로 삼는다.

이에 본 고에서는 먼저 무술변법 이전 시기의 주요 심리학 서적과 ‘psychology’의 역어에 대해 고찰하고, 이어 무술변법 이후의 심리학 번역어 수용 양상과 당대 출간된 주요 심리학 서적의 내용을 고찰한다. 마지막 맺음말에서는 신해혁명 이전까지 근대 중국의 서구 심리학 지식의 수용 양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輝, 閻書昌, 汪鳳炎, 孫小蕾 등이 근대 중국의 심리학을 다루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서적으로 출간된 楊鑫輝·趙莉如 主編, 『心理學通史 第2卷: 中國近現代心理學史』, 1991; 閻書昌, 『中國近代心理學史(1872-1949)』, 2015 등이 근대 중국의 심리학 수용을 살필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라 할만하다. 閻書昌의 연구서는 楊鑫輝·趙莉如 주편의 연구서 내용에 바탕하면서 그 이후의 연구성과를 잘 반영하고 있다.

9) 楊鑫輝·趙莉如 主編, 『心理學通史 第2卷: 中國近現代心理學史』, 1991, 98-144쪽.

10) 閻書昌, 『中國近代心理學史(1872-1949)』, 2015, 10-94쪽.

2. 무술변법 이전, 철학적 심리학 수용과 심리학 역어의 등장

동아시아에서 서구의 철학과 사상이 소개되고 수용된 것은 서세동점의 시작된 19세기 중후반부터이다. 서양 철학은 西學 혹은 新學이라는 범주 속에서 주로 종교나 군사과학 기술 등의 실용적 부분에 대한 부수적인 것으로 수용된다. 하지만 양무운동 시기의 中體西用에 입각한 서학 도입은 일정한 한계를 지녔다. 엄밀한 의미에서 서양 철학의 수용은 중체서용과 같은 선별적 수용 방식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가능해졌다. 즉 서양철학의 진정한 수용은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를 계기로 일어난 1898년 유신 변법 운동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다.¹¹⁾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중국의 서구 심리학 수용이 서양 철학의 수용 양상과 완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어난 무술변법 이후 서구 사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확연히 변한다는 사실은 심리학 수용사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서구심리학은 무술변법 이전에 중국인들에게 널리 수용되지 않고 주로 선교사들 중심으로 수용되며, 또 중국 지식인들의 ‘심리학’ 역어는 주로 유학 전통에 바탕한 용어를 채택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무술변법 이전의 심리학 내용과 역어 형태를 통해 살필 수 있다.

1) 정신철학으로서 심리학의 수용

19세기 중반부터 청일전쟁 이전까지 중국에서 서학은 주로 양무파 지식인들에 의해 정치적 사고와 결합된 자연과학 지식이 중점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들에 의해 중국에서는 서양 자연과학을 수용하기 위해 기구, 학교, 학회들이 설립되었다. 가령 외교 인재 양성을 위해 1862년에 동문관이 설치되고, 서양서 번역을 위해 1867년에 강남제조국이 설립되며, 이외 자연과학과 외국어 교육을 위해 미션스쿨과 양무학당 등이 설립되었다.¹²⁾

11) 조경란, 『중국 근현대 사상의 탐색: 강유웨이에서 덩샤오핑까지』, 2003, 33-34쪽 참조. 중국의 저명한 학자 거자오광 역시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를 서학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중국인들의 심성에 각인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거자오광 저, 이등연·심규호·양충렬 옮김, 『중국사상사 2』, 2015, 851-873쪽.

12) 조경란, 『중국 근현대 사상의 탐색: 강유웨이에서 덩샤오핑까지』, 2003, 35-36쪽. 이외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번역 사업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양일모, 「근대 중국의 서양학문 수용과 번역」, 2004, 131-135쪽을 참조할 수 있다.

서구 심리학의 경우 19세기 중후반 외국인 선교사들이 설립한 미션스쿨을 통해 심리학 교과 과정이 개설되어 관련 교육이 이루어졌다.

미션스쿨 가운데 가장 먼저 심리학 과정을 개설한 곳은 미국 장로회 선교사 머티어(C. W. Mateer, 1836~1908, 중국명: 狄考文)가 산둥 쑤저우에 세운 등주문회관이다. 이곳에서 1876년에 ‘心靈學’(Mental philosophy)이란 명칭의 심리학 교육 과정이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심리학 교과 과정이 행해진 곳은 미국 성공회 선교사 웨르쉐프스키(S. I. J. Schereschewsky, 1831~1906, 중국명: 施若瑟)가 상해에 설립한 성요한 서원이다. 이곳에서는 1879년에 심리학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외 미국 선교사 셰필드(D. Z. Sheffield, 1841~1913, 중국명: 謝衛樓)가 교장으로 복무하던 하북 通州의 로하 서원에도 심리학(Mental philosophy) 수업이 행해졌다. 로하 서원은 1868년 남학당으로 개설되어 1886년에 중학교로 변경되고 1893년에 서원으로 승격했는데, 1892년에 심리학 교과 과정이 행해졌다.¹³⁾

19세기 중후반 근대 중국에서의 서구 심리학의 초기 전파는 이상의 미션스쿨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당시 교과 과정을 통해 전해진 서구 심리학은 정신철학(mental philosophy)으로서 심리학이다. 심리학(정신철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필 순 없지만, 그 개괄적인 내용은 당시 출간된 심리학 서적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19세기 중후반부터 무술변법 사이에 출판된 것으로 명확히 알려진 심리학서는 성요한 서원에서 원장으로 복무하던 중국인 선교사 연용징(顏永京, 1839~1898)의 『心靈學』(1889), 동문관과 경사대학당에서 총교섭으로 활동하던 미국 선교사 마틴(W. A. P. Martin, 1827~1916, 중국명: 丁韋良)의 『性學舉隅』(영문명 *Christian Psychology*, 1898)이다.¹⁴⁾ 이외 간행일이 확실치 않은 로하 서원 교장 셰필드의 『靈學略論』와,¹⁵⁾ 서양 선교사들이 잡지에 수록

13) 楊鑫輝·趙莉如 主編, 『心理學通史 第2卷: 中國近現代心理學史』, 1991, 101-105쪽 및 閻書昌, 『中國近代心理學史(1872-1949)』, 2015, 15-17쪽. 참고로 등주문회관, 성요한서원, 로하서원 등과 같이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미션계 학교의 설립, 교육과정, 번역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이경자, 「중국 미션계 학교의 발전 과정」, 2014; 이경자, 「청말 선교사들의 교육활동」, 2015를 참고.

14) 汪鳳炎에 따르면, 1889년부터 1917년까지 중국에서 출판 혹은 발행된 심리학 서적은 32부이다. 이 중 무술변법 이전에 출간된 것은 『心靈學』과 『性學舉隅』이다. 汪鳳炎, 「漢語“心理學”一詞是如何確立的」, 2015, 199-200쪽.

15) 로하 서원에서 복무하던 셰필드는 1911년에 『心靈學』을 출간하였는데, 1890년대에 저술된 『靈學略論』은 이 『心靈學』의 최초 초고본으로 알려졌다. 閻書昌, 「晚清時期執權居士創制“心理(學)”

한 투고문 등도 당시 수용된 심리학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¹⁶⁾ 이러한 심리학 간행물은 무술변법 이전까지 서구 심리학이 중국 지식인들에 의해 널리 전파되지 않았고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다소 제한적으로 전파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연용징의 『심령학』과 마틴의 『성학거우』는 20세기 이전 중국의 심리학 초기 발전사의 중요 저작으로 평가된다. 두 책은 모두 선교사들이 지은 것으로 일정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다. 1889년에 출간된 『심령학』은 19세기 중엽 철학적 심리학의 내용을 담은 번역서이며, 무술변법 시기에 출간된 『성학거우』는 19세기 말 과학적 심리학의 발전내용이 혼입되어 있는 창작물 성격의 저술이다. 전자의 책은 미션스쿨의 활동과 관련되고, 후자의 책은 심리학을 종교 전파의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저술된 것으로 평가된다.¹⁷⁾

이 중 『심령학』은, 연용징이 성요한 서원에서 심리학 수업을 할 때, 미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 조셉 헤이븐(Joseph Haven, 1816~1874)의 *Mental Philosophy: Including the Intellect, Sensibilities and Will*(이하 ‘*Mental Philosophy*’로 약칭)를 교재로 삼아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원서를 번역한 것이다. 이 역서는 중국 최초의 서구 심리학 번역서이자,¹⁸⁾ 성요한 서원의 수업에서 사용하던 심리학 교과서로, 무술변법 이전에 일부 미션스쿨에서 전파되던 서구 심리학 내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연용징의 『심령학』은 헤이븐 원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번역한 것이다.¹⁹⁾ 그가 당시 다양한 서구 심리학서 가운데 유독 헤이븐의 원서를 취한 이유는 미국 유학시절 헤이븐의 책을 교재로 한 정신철학(mental philosophy) 수업을 들을 때 이 책을 읽고 유익함이 많았고 또 귀국 후 성요한 서원에서 이 책을 번역하면서 학생들에게 심리학을 가르칠 때 유익했기 때문이다.²⁰⁾²¹⁾ 더불어 헤

一詞의考察, 2018, 924쪽.

16) 『格致彙編』과 『科學導論』 등 잡지에 발표한 선교사들이 투고문에 심리학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종교 전파의 목적을 위해 서술한 것으로 말해진다. 閻書昌, 『中國近代心理學史(1872-1949)』, 2015, 35-38쪽.

17) 閻書昌, 『中國近代心理學史(1872-1949)』, 2015, 30-31쪽.

18) 참고로 헤이븐의 원서는 연용징에 앞서 일본에서 니시 아마네(西周, 1829~1897)에 의해 1875에 『心理學』으로 번역된다. 이때 니시 아마네가 사용한 ‘심리학’이란 어휘가 현재 ‘psychology’의 역어로 사용되고 있다. 佐藤達哉, 『日本における心理学の受容と展開』, 2002, 20-21쪽 참조.

19) 헤이븐의 *Mental Philosophy*는 내용상 서론 그리고 ‘Intellect’, ‘Sensibilities’, ‘Will’ 3부로 구성된다. 연용징의 번역서는 전반부에 해당하는 서론과 ‘지성(Intellect)’ 부분에 대해서 번역한 것으로 상권에 해당한다. 하권은 간행하지 않았다.

20) 『心靈學』, 「序」, “夫固備詳其義, 學者當以之爲根本也, 西國書院主例, 童生肄業凡四年, 至季

이븐이 논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 근거도 정확하고 자세하며 제시된 내용이 격식 있었기 때문이다.²²⁾ 이 서문 내용은 당시 헤이븐의 원서에 대한 위상과 인식을 잘 보여준다.

미국에서 19세기 초, 중엽의 초기 심리학은 하나의 지식 체계 혹은 학과로서 ‘지식’의 영역을 주로 다루는 ‘주지철학(intellectual philosophy)’의 기초 상에서 ‘감정’과 ‘의지’ 영역의 내용이 추가되어 형성되었고, 처음에는 ‘정신철학(mental philosophy)’이라고 불렸다.²³⁾ 이는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업햄(Thomas Upham, 1799~1872)에게서 비롯된다. 그는 1831년에 두 권의 *Elements of Mental Philosophy*를 출판하여 ‘주지철학’에 ‘감정’과 ‘의지’의 영역을 추가한 ‘정신철학’을 제시했는데, 이 책은 당시 심리학 교재로 널리 사용되었다. 이후 헤이븐은 기존의 정신철학에 심리학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채택, 보완하여 *Mental Philosophy*를 출간하였다. 헤이븐의 책은 더욱 완전해진 정신철학 교과서로 평가되며, 미국에서 1857년에 초판이 출판된 후 여러 차례 재판되면서 큰 영향을 끼쳤다.²⁴⁾

‘Psychology’ 용어는 미국에서 1840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헤이븐이 *Mental Philosophy*를 저술할 당시 ‘mental philosophy’와 점차 통용되었다. 하지만 당시까지 헤이븐의 원서 제목처럼 ‘mental philosophy’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 당시 심리학은 철학 및 신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았고, 심리학 담당자는 목사 경험자가 많았다.²⁵⁾ 즉 19세기 중엽에 유행하던 미국

年知識宏開，然後從事於此。余昔游學美國曾讀之，而知其書之裨益良多，前在聖約翰書院曾逐日將大略翻譯歎文教授後學，而學者似乎得其益處，予以爲凡肄業者欲立爲學之本，不可不讀是書，爰將前譯者，選詞考且，補輯成書，顏曰心靈學。”『心靈學』，「序」，1a쪽.

- 21) 신학자이자 목사인 엔용정은 미국 유학 시절 오하이오주 케니언 칼리지(Kenyon College)에서 수학했는데, 이 시기에 헤이븐의 *Mental philosophy*를 교재로 한 ‘정신철학(mental philosophy)’ 과정을 이수한 바 있다. 그는 중국으로 귀국 후 1878년에 상해 성요한 서원에서 원장으로서 원무와 수업을 겸하면서 심리학 등을 강의했다. 楊鑫輝·趙莉如 主編, 『心理學通史 第2卷: 中國近現代心理學史』, 1991, 105-106쪽; 孫小蕾, 「顏永京對近代西學傳播的貢獻」, 2019, 6쪽; 閻書昌, 「顏永京對西方心理學引入及其漢語心理學術語創制」, 2012, 116쪽.

- 22) 『心靈學』, 「序」, “西國論心靈學者，不一其人，而論法各異，於獨愛名儒海文氏之作，議論風生，考據精詳，竊取以爲程式。”『心靈學』, 「序」, 1b쪽.

- 23) 『中國近代心理學史(1872-1949)』, 2015, 11쪽.

- 24) 楊鑫輝·趙莉如 主編, 『心理學通史 第2卷: 中國近現代心理學史』, 1991, 8쪽; 太田恵子, 「ジョセフ・ヘウン」, 1997, 26-27쪽; C. James Goodwin 저, 박소현·문양호·김문수 옮김, 『현대심리학사』, 2004, 184-186쪽 참조.

- 25) 佐藤達哉, 『日本における心理学の受容と展開』, 2002, 4-5쪽; François H. Lapointe,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TERM “PSYCHOLOGY””, 1973, 138-160쪽 참조.

심리학은 근대 신심리학으로 변화하기 이전의 철학 및 신학과 관련된 정신철학으로서 심리학이었다.

성요한 서원의 연용징이 수용하여 가르쳤던 서구 심리학은 바로 19세기 중엽의 미국의 정신철학으로서 심리학이었다. 상세한 세부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앞서 등주문회관과 로하서원 역시 ‘mental philosophy’로서 심리학을 가르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술변법 이전에 중국에 전파된 서구 심리학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수용된 정신철학으로서 심리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구 심리학은 무술변법 이전에는 주로 선교사들에 의해 정신철학으로서 심리학이 수용·전파되고 중국 지식인들에 의해서는 널리 수용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중체서용’ 입장에서 서구의 사상보다는 과학기술을 주로 수용한 양무운동 시기 중국 지식인들이 일반적인 양상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양한 역어의 등장

19세기 중엽부터 무술변법 이전까지 서구 심리학에 대한 역어는 통일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역어들이 제시되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사용되는 ‘psychology’의 역어인 ‘心理學’은 애초에 일본의 니시 아마네가 조셉 헤이븐의 ‘mental philosophy’의 대역어로 제시한 것이다.²⁶⁾ 이 어휘는 중국에서 무술변법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수용된다. 19세기 중후반 심리학 용어는 ‘mental philosophy’, ‘psychology’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역어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용어가 등장했다.²⁷⁾

명칭	시기	사용자	출처 및 원어
靈魂學, 魂學,	1868	羅存德 (W. Lobscheid)	『英華字典』(第三卷), ‘psychology’

26) 이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이대승,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인의 서구 심리학 수용-니시 아마네와 연용징의 ‘mental philosophy’·‘psychology’ 번역을 중심으로-」, 2020, 209-217쪽 참조.

27) 위 표의 마지막 『영학약론』은 세필드가 1911년에 출간한 『心靈學』의 최초 초고본이다. 표의 내용은 閻書昌, 「晚清時期執權居士創制“心理(學)”一詞的考察」, 2018, 924쪽 표에서 mental philosophy, psychology 대역어와 심리학 학과 명칭으로서 사용자가 확실한 것만을 취하고, 汪鳳炎, 「漢語“心理學”一詞是如何確立的」, 2015, 196-197쪽에 보이는 1898년 嚴復의 사례를 추가하여 작성했다.

靈魂之智			
心理	1872	執權居士(朱逢甲)	『申報』, 「附論西教興廢來書」
性理	1872	眞實之士	『申報』, 「附錄辨論西教廢興書來稿」
靈魂說	1873	花之安(E. Faber)	『大德國學校論略』, 'mental philosophy'
心靈學	1876	狄考文(C. W. Mateer)	등주문화관 졸업생 졸업장에 수록된 교과 과정명, 'mental philosophy'
心才學	1882	顏永京	『肄業要覽』, 'psychology'
性情學	1886	羅亨利(H. B. Loch), 瞿昂來	『格致小引』, 'psychology'
心性學	1886	艾約瑟(J. Edkins)	『格致總學啟蒙』, 'psychology'
心靈學	1889	顏永京	『心靈學』, 'mental philosophy'
心學	1895	嚴復	『直報』, 「原強」
心理之學	1898	嚴復	『西學門徑功用』
性學	1898	丁韋良(W. A. P. Martin)	『性學舉隅』, 'psychology'
靈學	1890~1900	謝衛樓(D. Z. Sheffield)	『靈學略論』, 'mental philosophy'

위 대역어들은 조어 방식상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psychology’ 어휘의 원의에 중점을 둔 용어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 유교 사상(특히 성리학)에 바탕을 둔 용어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표에서 靈魂之學(영혼학), 魂學, 靈學, 心靈學 등이 심리학 원의를 반영한 대역어라 할 수 있다.

독일 선교사 로브사이트(W. Lobscheid, 1822~1893, 중국명: 羅存德)는 1868년에 영중사전 『英華字典』 제3권에서 ‘靈魂之學, 魂學, 靈魂之智’를 ‘psychology’의 대역어로 사용하고,²⁸⁾ 1873년에 독일 선교사 파버(E. Faber, 1839~1899, 중국명: 花之安)가 『大德國學校論略』에서 ‘mental philosophy’의 대역어로 ‘靈魂說’를 사용한다.²⁹⁾³⁰⁾ 이들 독일 선교사들의 대역어는 심리

28) 로브사이트의 『英華字典』(*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with the Punti and Mandarin Pronunciation*)은 홍콩 The Daily press office에서 1866~1869년(제1권은 1866, 제2권은 1867, 제3권 1868, 제4권은 1869년)에 출판되었다. 이는 19세기 영중사전들 가운데 최고 수준의 사전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英華字典』에서 metaphysics는 理學, 萬有理之學, natural philosophy는 性理之學, 博物理學, 格物總智, 心論, 心學, 博物之理, natural science는 格物, 博物之學, philosophy는 理學, 五常之理, 五常總論, physics는 性學, 格物 등의 대역어가 사용되었다. 임려, 『근대기 중국 기원 신성한자어의 한국어 유입과 정착 : 로브사이트의 『英華字典』을 중심으로』, 2018, 8~11쪽, 167~169쪽.

학의 원의를 충실히 반영한 용어라 할 수 있다.

독일 선교사들과 달리 미션스쿨의 미국 선교사들은 대개 ‘심령학’을 대역어로 사용한다. 조셉 헤이븐은 *Mental Philosophy*에서 ‘psychology’ 용어가 ‘mental philosophy’와 통용된다는 당시의 상황을 지적한다. 연용징은 헤이븐 원서에 보이는 이 두 용어에 대해 번역서에서 모두 ‘心靈學’이란 대역어를 사용한다.³¹⁾³²⁾ 머티어도 연용징에 앞서 등주문회관에서 1876년에 심리학(mental philosophy) 교과 과정을 개설했을 때 ‘심령학’을 사용하고, 세필드의 경우 초고본 『영학약론』을 1911년에 정식으로 간행할 때 ‘심령학’을 대역어로 사용한다.

‘심리학(psychology)’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영혼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psyche’와 어떤 주제를 연구한다는 의미의 ‘logos’가 합쳐진 것으로, 심리학은 초기에 ‘영혼에 대한 탐구’라고 여겨졌다.³³⁾ 독일 선교사 로브샤이트, 파브 등의 ‘靈魂之學’(영혼학), ‘靈魂說’ 등의 역어는 심리학의 원의를 반영한 역어라 할 수 있다. 반면 연용징, 머티어, 그리고 ‘영학’에서 ‘심령학’으로 대역어를 변경한 세필드 등 미션스쿨의 미국 선교사들이 사용한 ‘심령학’의 경우, 기본적으로 심리학의 원의를 반영하면서 전통 유교 사상과의 연속성을 위해 ‘心’ 어휘를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경우를 제외하면 중국 지식인들과 외국인들은 대체로 전통 유교 사상에 바탕을 둔 용어를 심리학 관련 대역어로서 취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의 표에서 1870~90년대의 주요 용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평자(朱逢甲, 1817~?)로 알려진 執權居士는 1872년에 창간된 중국 근현대의 대표적 신문인 『申報』³⁴⁾에 西教와 관련한 글인 「附論西教興廢來書」

29) 파버는 『大德國學校論略』에서 당시 독일의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어로 번역된 교육 술어, 학교 명칭, 그리고 학과 명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상세한 사항은 聶長順, 「花之安《德國學校論略》所定教育術語及其影響」, 2009, 65~77쪽 참조.

30) 세필드의 사례는 제외한다. 이는 『靈學略論』 인쇄 시기가 무술변법 전후인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책은 최초 초고본으로, 정식 간행은 1911년에 『心靈學』 명칭으로 출간되었기에, 세필드의 공식 역어는 ‘심령학’이라고 할 수 있다.

31) 헤이븐은 본문 Introduction의 Chater I에서 ‘Mental philosophy’의 통용어로서 ‘psychology’를 사용하며 당시 상황을 말하는데, 연용징은 두 용어를 ‘心靈學’으로 번역한다. *Mental philosophy*, 15~27쪽, 『心靈學』 본문 1a~9a쪽 참조.

32) 연용징은 애초에 『肄業要覽』(1882)에서 심리학 관련 역어로 ‘心才學’(‘psychology’)과 ‘心性學’(‘mental science’)을 사용했지만, 『심령학』에서는 기존 역어를 사용하지 않고 ‘心靈學’과 같은 새로운 역어를 사용했다.

33) 오세진 외, 『인간행동과 심리학』, 2005, 12쪽.

(1872/11/28)을 투고하면서, 화학, 천문학, 격물학 등과 같은 학과 명칭으로 ‘心理’ 어휘를 사용한다. 그는 전통 사상에 바탕을 두고 서구 사상을 일정 정도 이해한 인물로, 투고문에서 유학을 존중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시각을 제시하고, 선교사들의 중국 선교는 교리보다 과학지식을 전파한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일주일 뒤 성명을 알 수 없는 眞實之士란 선교사가 이 글을 논박하는 「附錄辨論西教廢興書來稿」(1872/12/5)를 투고하는데, 그는 여기서 집권거사의 ‘心理’ 대신 ‘性理’를 심리학의 학문 명칭으로 사용한다.³⁵⁾ 이들은 심리학 학과 명칭으로서 ‘심리’와 ‘성리’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이다.³⁶⁾

1880년대에는 영국 식민지 행정가 로크(H. B. Loch, 1827~1900, 중국명: 羅亨利)와 취앙라이(瞿昂來, ? ~?), 그리고 영국 선교사이자 한학자인 에드킨스(J. Edkins, 1823~1905, 중국명: 艾約瑟)가 ‘性情學’과 ‘心性學’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영국의 저명한 생물학자 헉슬리(T. H. Huxley, 1825~1895, 중국명: 赫胥黎)는 1880년에 *Science Primers, Introductory*를 저술한다. 이 책은 과학 서적으로 책 속에서 다양한 과학 분야를 언급하고 있다. 서양에서 심리학은 19세기 후반에 철학에서 떨어져 나와 과학의 한 분야가 되는데, 헉슬리는 책 말미에 정신 현상(mental phenomena)에 대한 연구 분야로서 심리학(psychology)을 언급한다.³⁷⁾ 헉슬리의 책은 중국에서 1886년에 로크·취앙라이에 의해 『격치소인』, 그리고 에드킨스에 의해 『격치총학계몽』으로 번역된다.³⁸⁾ 이 두 역서에서는 전

34) 『신보』는 1872년 창간하여 1949년까지 발행한 일간지로 서양인 어네스트 메이저(Ernest Major)에 의해 발행되었다. 『循環日報』와 함께 중국 근현대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신문이다. 『신보』의 편집진들을 포함하여 중국의 초기 신문에 관여한 언론인과 저자들은 보통 이상의 교육과 전통과 서양의 지식을 함께 갖춘 지식인들이다. 심태식, 「19세기 말 중국 신문의 위상과 지식 네트워크-초기 《申報》를 중심으로」, 2013, 143쪽.

35) 閻書昌, 「晚清時期執權居士創制“心理(學)”一詞的考察」, 2018, 921-926쪽.

36) 汪鳳炎과 閻書昌 등은 화학, 천문학 등과 함께 사용되는 맥락을 볼 때 이 용어들이 학과 명칭으로서 心理學 性理學임을 지적하며, ‘心理(學)’ ‘性理(學)’으로 표기하고 있다. 汪鳳炎, 「漢語“心理學”一詞是如何確立的」, 2015, 195-196쪽과 閻書昌, 「晚清時期執權居士創制“心理(學)”一詞的考察」, 2018, 923-924쪽 참조.

37) 헉슬리는 *Science Primers, Introductory*의 말미 제3부의 “66. Mental Phenomena”과 “67. The order of Mental Phenomena: Psychology”에서 정신 현상과 정신 현상에 대한 연구 분야로서 ‘Psychology’를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Professor Huxley, F. R. S., *Science Primers, Introductory*, 1880, 92-94쪽.

38) 『격치총학계몽』은 비교적 원서에 충실하지만 문장이 통하지 않은 곳이 비교적 많다. 『격치소인』은 상당 부분을 산삭하여 번역했지만, 번역문이 비교적 잘 다듬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원의를 잘 전달하고 있다. 두 역서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王揚宗, 「赫胥黎《科學導論》的兩個中譯本:兼談清末科

통 유교의 ‘性情’, ‘心性’ 개념을 사용하여, ‘mental phenomena’를 각각 ‘性情’과 ‘心性諸事’로, ‘psychology’를 ‘性情學’과 ‘心性學’로 번역한다.³⁹⁾

1890년대에는 연푸(嚴復, 1854~1927)와 마틴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연푸의 경우 서구 심리학에 대한 대역어로, 1895년 天津의 『直報』에 발표한 「原強」에서 ‘心學’ 용어를, 1898년 『西學門徑功用』이란 글에서 ‘心理之學’ 용어를 제시한다.⁴⁰⁾ 앞서 언급한 미국 선교사 마틴은 1898년에 근대 서구 심리학 지식이 혼입된 중국어 심리학 저작인 『성학거우』를 간행한다. 마틴은 여기서 ‘性學’을 ‘psychology’의 대역어로 사용하는데, 이는 송명 성리학의 인성에 대한 해설을 빌어 착안점으로 삼고, 아울러 명대 예수회 선교사 알레니(Giulio Aleni, 1582~1649, 중국명: 艾儒略)가 『性學摘述』(1623)에서 사용한 ‘性學’ 용어를 답습했다고 평가된다.⁴¹⁾

이상 18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중국 지식인들과 외국 선교사들은 주로 전통 유교(특히 송명 이학) 개념에 바탕을 둔 역어를 사용했다. 이들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당시 생소한 서구 심리학을 유교 전통의 중국 지식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앞서 ‘mental philosophy’ 역어로 ‘심령학’ 어휘를 사용했던 연용징 역시 1880년에 성요한 서원의 교과 과정을 광고하기 위해 『申報』에 「聖約翰書院告白」를 게재할 때 심리학 대역어로 ‘心學’ 어휘를 사용했다.⁴²⁾ 이는 서구 심리학이 수용되던 초기에 낯선 학문의 이해 혹은 도입을 위해 전통 유교 사상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한 작업이었음을 보여준다.

學譯著的準確性」, 2000 참조.

39) 『格致小引』과 『格致總學啟蒙』에서 ‘Mental Phenomena’를 전자는 ‘性情’ 후자는 ‘心性諸事’, ‘Mental Phenomena’에 대한 학문으로서 ‘Psychology’를 전자는 ‘性情學’ 후자는 ‘心性學’으로 번역하고 있다. 『格致小引』, 光緒十二年(1886), 23a-23b; 『格致總學啟蒙』卷下, 光緒丙戌仲冬(1886), 68a-69b.

40) 汪鳳炎, 「漢語“心理學”一詞是如何確立的」, 2015, 196-197쪽

41) 趙莉如, 「中日心理學史上的早期聯系與交流」, 1991, 201-202쪽; 汪鳳炎, 「漢語“心理學”一詞是如何確立的」, 2015, 195-196쪽.

42) 『申報』, 1880년 2월 3일의 「聖約翰書院告白」. 閻書昌, 『中國近代心理學史(1872-1949)』, 2015, 16쪽.

3. 무술변법 이후, 근대 심리학과 역어 ‘심리학’의 수용과 정착

거자오광의 말을 빌면, 중국은 서양 문명과 대면했을 때 1895년 이전에는 “대체로 모두 크라크(E. A. Kracke)가 말한 ‘전통 속에서의 변화’를 견지”하다가, 1895년 이후에는 “모두 서양 지향의 ‘근대’로 전환하여 ‘전통 밖으로의 변화’가 등장”했다.⁴³⁾

“우리나라가 사천여 년의 커다란 미몽에서 깨어난 것은 진실로 갑오년의 전쟁에서 패하여 대만을 뺏기고 2백조를 배상한 이후에 비롯되었다.”⁴⁴⁾ 무술정변의 실상을 기록한 『무술정변기』 첫 구절에서 언급한 량치차오(梁啟超, 1873~1929)의 이 말은 청일전쟁이 중국의 사상과 문화에 끼친 영향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양무운동 시기까지 중체서용의 입장에서 서구의 과학과 사상을 수용하지만, 청일전쟁 이후에 그 같은 입장을 벗어나 서구문물을 적극 수용한다. 갑오년 청일전쟁 이후 “사천여 년의 커다란 미몽에서 깨어난” 중국 지식인들은 “전통적 구학을 버리고 서양의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향”⁴⁵⁾한다.

청일전쟁의 패배는 중국에서 서구 사상의 수용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무술변법에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된다. 그래서 중국에서 엄격한 의미의 서양 철학의 수용은 “청일 전쟁의 패배를 계기로 일어난 유신변법 운동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말해진다.⁴⁶⁾

무술변법 이후 서구 지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양상은 빠르게 확산되는데, 중국인들은 서구 지식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첩경으로 “번역을 잘하는 일본에서 서학을 들여오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 “일본이 빠르게 부상”하게 되고, 중국은 일본을 본보기로 삼아 서구 사상을 수용한다.⁴⁷⁾ 그리고 널리 알려졌듯이 그 과정의 선봉에 선 대표적 인물은 Kang Youwei(康有爲, 1858~1927)와 량치차오다. 근대심리학 역시 서구 지식의 하나로서 Kang Youwei와 량치차오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번역어와 심리학 서적의 수용이 추동된다. 그 이후 서구 근대심

43) 거자오광 저, 이등연·심규호·양충렬 옮김, 『중국사상사 2』, 2015, 867쪽.

44) 『戊戌政變記』, 第一篇「改革實情」, 第一章「康有爲嚮用始末」, “孟子曰, ‘入則無法家拂士, 出則無敵國外患者, 國恒亡.’ 信哉言乎! 吾國四千餘年之大夢之喚醒, 實自甲午戰敗, 割臺灣償二百兆以後始也.” 張品興 主編, 『梁啟超全集』 第1卷, 1999, 181쪽.

45) 거자오광 저, 이등연·심규호·양충렬 옮김, 『중국사상사 2』, 2015, 867쪽.

46) 조경란, 『중국 근현대 사상의 탐색』, 2003, 33쪽.

47) 거자오광 저, 이등연·심규호·양충렬 옮김, 『중국사상사 2』, 2015, 869~870쪽.

리학은 일본으로부터 물밑듯이 수용된다.

1) 역어 ‘심리학’의 수용과 정착

무술변법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서구 심리학에 대한 대역어로 영혼학, 심리, 성리, 심령학, 성정학, 심성학, 심학, 심리지학, 성학 등 다양한 용어가 등장했지만, 이 용어들은 널리 공인된 역어로 정착되지 못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psychology’의 역어로 공인된 ‘心理學’이란 어휘는 일본의 니시 아마네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중국에서 이 용어는, 무술변법 전후로 캉유웨이와 량치차오가 일본어 역어 ‘심리학’을 언급하고, 일본어 역어 수용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수용되어 널리 사용된다.

캉유웨이는 일찍이 1870~80년대부터 일본 서적의 번역을 통해 서구 과학지식을 학습하자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1896년에 일본의 지인을 통해 일본어 서적을 대량으로 얻고, 『日本書目志』와 『日本變政考』를 편집하기 시작했다. 이 중 일본어 서적 목록을 정리한 『일본서목지』에는 당시 얻은 심리학 서적 목록 역시 기록되어 있다. 캉유웨이는 당시 니시 아마네의 『心理學』을 비롯한 25종의 심리학 서적을 수입했다. 그의 『일본서목지』는 1897년에 창립된 상해의 번역 출판 기관인 大同譯書局에서 이듬해 봄(1898년)에 출판됨으로써,⁴⁸⁾ ‘psychology’에 대한 대역어로서 ‘心理學’이란 명칭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⁴⁹⁾

캉유웨이와 결별하기 전까지 제자로서 그의 사상을 옹호한 량치차오는 『일본서목지』가 정식 출판되기 전의 초고를 읽고 1897년 11월 15일 『時務報』에 「讀日本書目志書後」를 발표한다. 여기서 그는 “오늘날 중국이 自強하고자 한다면,

48) 『일본서목지』는 1897년 10~11월에 창립된 상해 대동역서국에서 출판된다. 이 책의 간행일은 명확치 않지만 『大同譯書局新出各書』 광고에 이 책이 『孔子改制考』(캉유웨이 서명일: 1898년 1월 22일) 뒤에 배열된 것을 고려할 때 1898년 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閻書昌, 『中國近代心理學史(1872-1949)』, 2015, 42쪽.

49) ‘심리학’ 용어와 관련하여, 楊鑫輝·趙莉如(1991)는 캉유웨이의 『日本書目志』를 통해 이 용어가 수입되었다고 본다. 반면 최근 執權居士(未達甲) 사례가 발견되어, 汪鳳炎(2015), 閻書昌(2018) 등은 執權居士가 1872년 ‘心理(學)’을 이미 제시했고, 이것이 니시 아마네보다 이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집권거사의 용어는 당시의 여러 대역어 가운데 하나로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캉유웨이와 량치차오의 일본어 역어 수용 이후에 ‘psychology’의 역어로 ‘심리학’이 널리 정착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楊鑫輝·趙莉如 主編, 『心理學通史 第2卷: 中國近現代心理學史』, 1991, 137-144쪽; 汪鳳炎, 「漢語“心理學”一詞是如何確立的」, 2015; 閻書昌, 「晚清時期執權居士創制“心理(學)”一詞的考察」, 2018 참조.

첫째의 방책은 마땅히 책의 번역을 第一義로 삼아야 한다”는 말로 글을 시작한다. 그리고 강유웨이의 『일본서목지』를 거론하고, 말미에서 “우리 지식인들이 生理, 心理, 倫理, 物理, 哲學, 社會, 神教 등의 뜻 서적을 읽고, 널리 살피면서 핵심을 취하고, 깊이 사색하면서 정밀히 연구하여 우리 공자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길 바란다.”고 말한다.⁵⁰⁾ 량치차오는 강유웨이의 논의를 계승하여 일본 서적의 번역을 강조하고 서구의 생리(학) 심리(학) 윤리(학) 철학 등을 널리 살펴야 한다고 역설하는데, 그 과정에서 ‘심리(학)’을 ‘철학’과 같은 학문 명칭으로 인정하고 있다.

량치차오가 설립하고 강유웨이의 동생 강유푸(康有溥, 1867~1898)가 경영하던 대동역서국에서는 1898년 봄에 일본의 모리모토 도키치(森本藤吉, 1850~1922)가 저술하고 윈즈리엔(翁之廉, 1882~1929)이 교정하며 량치차오가 서문을 작성한 『大東合邦新義』를 출판한다. 이 책의 본문에서 ‘心理學’이란 명칭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량치차오는 이 명칭을 사용하면서 “‘심리학’은 성정의 차이와 人心의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해설한다.⁵¹⁾

이처럼 무술변법 시기 일본 서적과 용어의 수입을 강조한 강유웨이와 량치차오의 활약은 서구 학과명으로서 ‘심리학’이란 명칭을 전파하고 일본 심리학을 수용하고 관련 서적을 번역하는 흐름을 추동한다. 이에 1901년에 처음으로 일본 심리학서 번역서인 『應用心理學』을 비롯하여 1902년에는 『心理學』, 『心理教育學』, 『初等心理學』 등 ‘심리학’ 명칭을 사용한 일본어 서적의 번역서가 발간된다.⁵²⁾ 또 이해에 일본 학자가 중국에 최초로 초빙되어 심리학 강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1902년까지 중국에서 ‘心理學’과 ‘哲學’에 대한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량치차오가 『新民叢報』 18호(1902년 10월 16일 발행)⁵³⁾

50) 『時務報』, 「讀日本書目志書後」, “今日中國欲爲自強, 第一策當以譯書爲第一義義”; “願我人士, 讀生理·心理·倫理·物理·哲學·社會·神教諸書, 博觀而約取, 深思而研精, 以保我孔子之教.” 張品興 主編, 『梁啟超全集』 第1卷, 1999, 128-129쪽.

51) 『大東合邦新義』, “心理學研究, 性情之差別, 人心之作用者也.” 閻書昌, 『中國近代心理學史(1872-1949)』, 2015, 43쪽 재인용.

52) 번역서는 다음과 같다. (日)林吾一, 樊炳清譯, 『應用心理學』, 教育世界出版社, 1901. (日)久保田貞則, 『心理教育學』, 1902. 번역자 미상. (日)元良勇次郎, 王國維譯, 『心理學』, 教育世界社, 1902. (日)廣田秀太郎, 『初等心理學』, 1902. 역자와 출판사 명칭 미상. 汪鳳炎, 「漢語“心理學”一詞是如何確立的」, 2015, 199-200쪽.

53) 『新民叢報』는 중국의 무술변법 실패로 일본으로 망명해 있던 강유웨이 등의 보황회가 1902년 2월

에 발표한 글은 ‘psychology’의 역어로서 ‘심리학’ 명칭을 확실히 각인시킨다. 그는 1902년 9월 상해에서 창간된 반월간 잡지 『新世界學報』 1~3호에서 18부문의 학과를 소개할 때 ‘심리학’을 ‘철학’과 혼동하는 것을 지적하며, “일본인들은 영문 ‘psychology’를 ‘心理學’으로 번역하고, 영문 ‘philosophy’를 ‘哲學’으로 번역한다. 양자의 범위는 분명히 같지 않다. 비록 우리들의 번역어가 일본 사람들을 맹종할 필요는 없지만, 이에 대한 일본인의 번역어는 사실 상당한 창안을 거쳐 서방의 어원과 서로 부합되니, 가볍게 바꿀 수 없다. … ‘Philosophy’로 이 명칭(심리학)을 덮는다면 ‘Psychology’는 또 무슨 말로 번역하겠는가? 이는 내가 감히 동의하지 못하는 바이다.”⁵⁴⁾고 명시한다. 이는 ‘psychology’와 ‘philosophy’는 서로 다른 학문으로 양자의 대역어는 각각 ‘심리학’과 ‘철학’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함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후 ‘심리학’과 ‘철학’ 명칭은 ‘psychology’와 ‘philosophy’의 대역어로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심리학 서적은 갈수록 늘어나 신해혁명 이전까지 20여 책에 이르는데 상당수가 번역서로서 ‘심리학’ 용어를 사용한다.⁵⁵⁾ 중국 근대 첫 번째 백과전서 형식의 공구서로서 신해혁명 시기(1911)에 上海國學扶輪社에서 출간된 『普通百科全書大辭典』에서는 이미 철학 조목에 82조목, 심리학 조목에 41조목이 수록된다. 또 서구의 학과명으로 ‘심리학’ 명칭의 교과 과정이 중국 교육 시스템 속에 자리하게 되고, 후대의 기독교 대학에서도 초창기 사용되었던 ‘심령학’ 용어가 ‘심리학’으로 변경된다.⁵⁶⁾

8일 요코하마에서 창간한 기관지이다.

- 54) 『新民叢報』第18號, 「紹介新著」, 『新世界學報第一二三號』, “此報凡分十八門, 曰經學, 曰心理學, 曰倫理學, … 其分類頗欠妥愜者, 如其中心理學者一門, 最爲鄙意所不敢苟同. 統觀三號, 其心理學門皆論哲學也. 日人譯英文之Psychology爲心理學, 譯英文之Philosophy爲哲學, 兩者範圍, 截然不同. 雖我輩譯名不必盲從日人, 然日人之譯此, 實頗經意匠, 適西文之語源相吻合, 未易遽易之也. … 且既以Philosophy冒此名, 則於Psychology又將以何語譯之? 此吾所不敢苟同也.” 下河辺半五郎 編, 『壬寅新民叢報彙編』, 1904, 860쪽.
- 55) 심리학서의 경우 1901년부터 신해혁명(1911) 시기까지 20여 부의 심리학서가 간행된다. 그 중 ‘심리학’ 명칭을 사용한 책이 상당수이며, 초창기 서적의 경우 일본 서적의 번역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汪鳳炎, 「漢語“心理學”一詞是如何確立的」, 2015, 199-200쪽 참조.
- 56) 楊鑫輝·趙莉如 主編, 『心理學通史 第2卷: 中國近現代心理學史』, 1991, 144쪽; 汪鳳炎, 「漢語“心理學”一詞是如何確立的」, 2015, 200쪽 참조.

2) 근대 심리학의 수용

무술변법 이후 서구 심리학은 일본을 매개로 물밀듯이 수용된다. 교육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교육 제도를 본받고, 사범관과 사범학당은 일본 학자를 초빙하여 심리학을 가르친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심리학 교재는 대부분 일본의 것을 중역했고, 스스로 편찬한 심리학 교재 역시 대부분 일본 유학생들에게서 나왔으며 그 내용은 주로 일본 심리학서를 참고했다.⁵⁷⁾

무술변법 이후의 심리학 내용은 당시 출간된 심리학 서적을 통해 살필 수 있다. 다양한 서적 가운데 핫토리 우노키치(服部宇之吉, 1867~1939)의 『心理學講義』(1905), 왕귀웨이(王國維, 1877~1927)의 『心理學』(1902)과 『心理學概論』(1907), 그리고 천황(陳榘, 1872~1931)의 『心理易解』(1905) 등은 당시 심리학 수용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청말 민국 초 저명한 학자 왕귀웨이는 1902년에 일본의 심리학자 모토라 유지로(元良勇次郎, 1858~1912)의 『心理學』을 번역하여 편찬한다.⁵⁸⁾⁵⁹⁾ 모토라 유지로는 심리학은 철학과 크게 다르고 과학과 매우 친밀하다는 시각을 제시하면서 심리의 생리학적 기초를 중시한다.⁶⁰⁾ 심리학이 철학과 다르고 과학과 친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시각은 19세기 중후반에 일어난 근대 심심리학의 관점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서구 심리학은 19세기 중후반에 철학에서 이탈하여 근대 심심리학으로 변화한다. 심리학은 철학과 신경생리학에 바탕을 두고 19세기 후반 자신의 학적 체계와 과학적 연구 방법을 얻고서 하나의 독립된 과학으로 자리한다. 여기에는 물리적 자극과 심리적 반응의 관계를 논한 독일 페히너(Gustav Fechner, 1801~1889)

57) 楊鑫輝·趙莉如 主編, 『心理學通史 第2卷: 中國近現代心理學史』, 1991, 137쪽.

58) 왕귀웨이는 1902년 2월에 상해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지만 도쿄에서 4~5개월만에 각기병 재발하여 상해로 귀국한다. 그는 이 해에 구와키 겐요쿠(桑木嚴翼)의 『철학 개론』과 모토라 유지로의 『심리학』, 『윤리학』 등을 번역해 『哲學叢書初集』을 만들고 교육세계사에서 인쇄한다. 왕귀웨이 저, 류창교 옮김, 『정암 문집』, 2014, 352~353쪽.

59) 왕귀웨이는 서문을 번역하지 않고 본문만 번역했다. 원서는 크게 ‘感覺’ ‘主觀的觀念’ ‘苦樂之感’ ‘觀念之刺激의性質’ 등을 다루고 있다. 원서와 역서의 목록을 비교해보면, 역서는 전체적으로 원서 구성을 따르되 가독성을 위한 차이가 일부 있고, 용어 역시 일본어 한자어를 따르되 일부 차이를 둔다. 謝維揚·房鑫亮 編, 『王國維全集』 第17卷, 2009, 307~309쪽, 元良勇次郎 著, 『心理学』, 1890, 目錄, 1~8쪽.

60) 閻書昌, 『中國近代心理學史(1872~1949)』, 2015, 60쪽.

의 정신물리학을 거쳐, 분트(Wilhelm Wundt, 1832~1920)에 의해 이루어진 실험심리학의 창시가 핵심을 이룬다. 특히 1879년 분트에 의한 심리학 실험실의 설립은 근대의 과학적 신심리학을 확립한 표지로 인정된다.⁶¹⁾

미국에서 심리학은 19세기 중엽까지 도덕철학 혹은 정신철학으로 가르쳐졌다. 미국 심리학은 이후 실용주의 철학자로 널리 알려진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와 독일에 유학하여 분트의 실험심리학을 배운 스탠리 홀(G. Stanley Hall, 1844~1924) 등의 활약으로 19세기 말엽에 실험실 기반의 과학적 신심리학으로 변모한다.⁶²⁾

모토라 유지로는 미국 유학을 통해 당시 존스홉킨스 대학에 재직하던 스탠리 홀에게 근대 실험과학으로서 정신물리학을 수학하여 일본에 근대 신심리학을 전파한 첫 번째 심리학자이다. 그는 1888년에 귀국하여 동경제국대학에서 일본 최초의 정신물리학 강의를 진행한다. 그가 1890년 10월에 동경제국대학 문과대학 교수로 임명되고 12월에 저술한 서적이 왕귀웨이가 번역한 『심리학』이다. 이 책은 일본인에 의해 최초로 저술된 심리학서로, 정신물리학으로서 근대 신심리학의 내용이 담겼다.⁶³⁾

왕귀웨이의 번역서 『심리학』이 출간된 1902년에는 동경제국대학 문과대학 조교수를 지냈던 일본 학자 핫토리 우노키치가 중국에 최초로 초청되어 京師大學堂에서 심리학 강의를 진행했다.⁶⁴⁾ 이 강의는 1905년에 일본과 중국에서 『心理學講義』로 발행되는데,⁶⁵⁾ 이 책은 근대 과학적 신심리학의 초기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중국의 고전 사례를 통해 심리학의 내용을 해설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근대과학 심리학이 도입되었을 때, 중국 문화와 심리학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시키려 했음을 보여준다.⁶⁶⁾

61) 근대 신심리학의 확립과 관련하여 C. James Goodwin 저, 박소현·문양호·김문수 옮김, 『현대심리학사』, 2004, 107~145쪽 참조.

62) 미국 심리학과 관련하여 C. James Goodwin 저, 박소현·문양호·김문수 옮김, 『현대심리학사』, 2004, 183~223쪽 참조.

63) 모토라 유지로의 생애, 심리학자로서 활동, 그리고 『심리학』 저술 등에 대한 사항은 佐藤達哉, 『日本における心理学の受容と展開』, 2002, 82~134쪽 참조.

64) 핫토리 우노키치는 1902년 9월에 초빙되어 1909년까지 1월까지 京師大學堂 師範館의 正教習으로 심리학, 윤리학, 교육학 등을 교수했다. 이와 관련하여 張洪萍·胡韜, 『服部宇之吉與京師大學堂師範館』, 2014 참조.

65) 핫토리 우노키치의 심리학 강의는 당시 조교였던 范源濂에 의해 譯述된다. 이 초고는 이후 윤색과 수정을 거쳐 1905년 일본 도쿄 東亞公司(明治38年11月24日)와 중국 상해 東亞公司新書局(光緒31年10月28日)에서 『心理學講義』(중국어)로 발행된다.

20세기 초엽 출간된 심리학서는 대다수 일본 심리학 번역서이다. 하지만 드물게 번역이 아닌 중국인 저술이 출간되기도 하고, 일본이 아닌 서양 심리학서가 번역되기도 하는데, 전자는 천황의 『心理易解』(1905), 후자는 왕귀웨이의 『心理學概論』(1907)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천황은 1898년에 관비로 일본 유학을 떠난 최초의 중국 유학생 가운데 한 명으로, 유학 시절 심리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심리학을 학습하여 일본 심리학서들의 내용을 취사선택하고 편집한 『심리이해』를 1905년 편찬한다. 이 책은 중국에서 첫 번째로 편찬된 중국인 심리학서이다.⁶⁷⁾

『심리이해』에서는 심리학이 하나의 전문적인 학문 분야임을 언급한다. 그리고 최근 심리학이 실험물리 방법으로 심리를 연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여, 정신물리학의 경우 물리학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당시 심리학이 하나의 독립된 과학이 되었음을 지적한다. 더불어 본문에서는 당시 일본에서 성행하던 회프딩(Harald Høffding, 1843~1931)의 관점을 인용하고 에빙하우스(Hermann Ebbinghaus, 1850~1909)의 기억실험을 소개하는 등 근대 심리학의 내용을 거론하고 있다.⁶⁸⁾

왕귀웨이의 『심리학개론』은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회프딩의 *Outlines of Psychology*를 번역하여 1907년에 출간한 번역서이다.⁶⁹⁾ 회프딩의 책에서는 심리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과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과학의 각도에서 심리학을 보면서 심리학의 연구 방법과 심리의 생리 메커니즘을 소개한다. 심리학 계통 측면에서 이 책은 모토라 유지로의 『심리학』보다 훨씬 더 현대 심리학에 가깝다.⁷⁰⁾ 회프딩의 원서는 덴마크에서 호평을 받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면서 20세기 초 국제적인 심리학 교과서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⁷¹⁾

66) 『心理學講義』 간행과 내용,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는 閻書昌, 「服部宇之吉의〈心理學講義〉」, 2009, 464-470쪽; 服部宇之吉, 『心理学講義』, 1905 참조.

67) 천황은 청나라 光緒 24년(1898)에 절강성에서 최초로 官費로 일본 유학을 갔다. 동경제국대학에서 수학하고 졸업 후 일본에 남아 數學, 物理學, 心理學 등 대학 전문 교재를 편찬했다. 그는 『심리이해』, 「輯言十則」에서 서구 심리학서는 Michael Maher, S. J.가 저술한 심리학서만을 참고하고 나머지는 일본 서적을 참고하여 편집했음을 밝힌다. 그의 『心理易解』는 1905년에 일본 도쿄의 淸國留學生會館教科書編譯社, 1906년에 중국의 上海會文堂에서 출간되었다. 楊鑫輝·趙莉如 主編, 『心理學通史 第2卷: 中國近現代心理學史』, 1991, 134-135쪽; 陳槐, 『心理易解』, 1905.

68) 楊鑫輝·趙莉如 主編, 『心理學通史 第2卷: 中國近現代心理學史』, 1991, 135-136쪽.

69) 회프딩의 원서는 1887년에 독일어로 번역되고 1891년에 영어로 번역되는데, 왕귀웨이는 이 영문판을 바탕으로 번역했다.

70) 閻書昌, 『中國近代心理學史(1872-1949)』, 2015, 61쪽.

왕귀웨이의 역서 『심리학개론』은 사범학당에서 사용된 책으로 당시 교육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며, 1907년 간행 이후 1935년까지 여러 차례 재판하며 널리 유행하였다. 이 책은 치밀한 체계를 갖춘 심리학 저서로서 중국의 근대심리학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역서로 평가된다.⁷²⁾

이상에서 핫토리 우노치키는 20세기 초 청 정부의 교육시스템에서 이루어진 심리학 교육 내용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근대 신심리학이 일본 학자를 통해 교수되었음을 보여준다. 모토라 유지로와 회프팅의 저술을 번역한 왕귀웨이는 심리학 수용이 번역을 통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일본 유학 시절 여러 심리서들을 취사선택하여 책을 저술한 천황은 중국인이 심리학서를 저술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저역서는 당시 중국에 유행한 심리학이 과학으로서 근대 신심리학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4. 맺음말

중국이 “사천여 년의 커다란 미몽에서 깨어난 것은 진실로 갑오년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비롯되었다는 량치차오의 언급은 청일전쟁이 중국에 끼친 영향을 선명히 보여준다. 양무운동 시기 중체서용의 입장에서 서구의 과학과 사상을 수용한 중국은 청일전쟁 이후 “전통적 구학을 버리고 서양의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향”한다. 중국에서 서구 사상의 수용에 근본적인 변화는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어난 무술변법에서부터 시작된다.

중국에서 무술변법 이전의 서구 심리학은 양무운동 시기 중체서용의 입장에서 서구 과학문물을 주로 수용하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매우 제한적으로 수용된다. 이는 주로 미션스쿨을 통해 정신철학으로서 심리학이 전파되었다. 심리학 용어는, 종교적 느낌이 강한 ‘영혼학’ 혹은 ‘심령학’이라는 심리학 원의에 충실한 역어를 취한 독일 선교사들과 미션스쿨의 미국 선교사들을 제외하고, 중국 지식

71) 덴마크어 원서는 11판을 재판했고, 이외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핀란드어, 일본어, 터키어, 중국어 등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다. 회프팅과 *Outlines of Psychology*의 개괄적 내용과 국제적 의의에 대해서는 Jörgen L. Pind, "'A field open to everybody': Harald Høffding and his classic textbook *Outlines of psychology* (1882)", 2019, 177-199쪽 참조.

72) 왕귀웨이는 『심리학』, 『심리학개론』 외에 1910년에 번역서인 『교육심리학』을 간행하기도 했다. 왕귀웨이의 『심리학개론』 평가는 閻書昌, 『中國近代心理學史(1872-1949)』, 2015, 60-61쪽 참조.

인들과 외국인들은 서구 심리학 수용 초기에 낯선 학문의 이해 혹은 도입을 위해 心理, 性理, 心性學, 心學, 性學 등과 같이 대체로 전통 유교 사상 개념을 바탕으로 한 대역어를 취했다.

무술변법 이후 Kangyuei와 Rangchiao와 같은 지식인들에 의해 서구 사상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과 맞물려, 심리학 역시 서구 지식의 하나로서 전면적으로 수용되는 양상으로 전변된다. 무술변법 시기에 Kangyuei와 Rangchiao에 의해 일본의 역어 ‘心理學’ 어휘가 수용되고 일본어 서적의 번역이 추동된 이후 일본을 매개로 다방면에서 서구 심리학이 전해진다. 교육시스템에서 핫토리 우노키치와 같은 일본 학자가 초빙되어 심리학 수업이 이루어지고, 이는 학생들에 의해 정리되어 심리학서로 편찬된다. 천황과 같은 일본 유학생이 일본 심리학서를 바탕으로 심리학서를 편찬하기도 하고, Wangyuei 같은 저명한 국학자가 근대 신심리학 서적을 번역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에 근대 신심리학이 수용되어 널리 전파된다.

신해혁명 이후에는 근대 신심리학을 개창한 분트로부터 직접 사사한 지식인과 서양에서 근대 신심리학을 공부한 지식인들이 귀국하여 서구 심리학이 전해진다. 그리고 분트의 중국인 제자로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심리실험실에 참관했던 차이위안페이(蔡元培, 1868~1940)가 북경대학 원장에 재임할 때 중국 최초로 심리실험실이 창설된다.⁷³⁾ 이후 마음과 정신에 대한 근현대 학문은 점차 유교 전통으로부터 탈영토화되고 그 자리를 서구 심리학이 대신하게 된다.

본 글은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구심리학 수용의 양상을 탐색했다. 더불어 무술변법 전후의 사상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서구심리학 수용 양상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는 관련된 국내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서구심리학 수용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서구심리학이 수용 당시 대역어로 사용된 여러 유교 개념들의 함의, 당시 유교 지식인들의 대응과 반응의 양상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다소 미진하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탐구 및 한국의 서구심리학 초기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긴다.

73) 중국 최초의 심리실험실은 陳大齊에 의해 1917년에 창설된다. 심리학과 관련한 蔡元培와 陳大齊의 활동, 그리고 심리실험실과 관련하여 閻書昌, 『中國近代心理學史(1872-1949)』, 2015, 68-79쪽 참조.

참고문헌

- 服部宇之吉, 『心理学講義』, 東亞公司, 1905.
- 顏永京, 『心靈學』, 益智書會, 光緒十五年.
- 元良勇次郎 著, 『心理学』, 金港堂, 1890.
- 陳槐, 『心理易解』, 教科書譯輯社, 1905.
- 下河辺半五郎 編, 『壬寅新民叢報彙編』, 下河辺半五郎, 1904.
- 『格致小引』, 江南製造局, 光緒十二年.
- 『格致總學啟蒙』 卷上~卷下, 總稅務司, 光緒丙戌仲冬.
- Joseph Haven, *Mental Philosophy: Including the Intellect, Sensibilities and Will*, Gould and Lincoln, 1857.
- Professor Huxley, F. R. S., *Science Primers, Introductory*, D. Appleton and Company, 1880.
- C. James Goodwin 著, 박소현·문양호·김문수 옮김, 『현대심리학사』, 시그마프레스, 2004.
- François H. Lapointe,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TERM "PSYCHOLOGY"", in *Rivista Critica di Storia della Filosofia* 28(2), APRILE-GIUGNO, 1973.
- Jörgen L. Pind, "'A field open to everybody": Harald Høffding and his classic textbook *Outlines of psychology*(1882)", in *Nordic Psychology* 71(3), 2019.
- 거자오광 著, 이등연·심규호·양충렬 옮김, 『중국사상사 2』, 일빛, 2015.
- 박연규, 「동서철학인가, 비교철학인가—연구방법론의 양식성과 내재성—」, 『철학·사상·문화』 제4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06.
- 심의용, 「식민지 시기 심리학교과서와 계몽」, 『대동철학』 제91집, 대동철학회, 2020.
- 심태식, 「19세기 말 중국 신문의 위상과 지식 네트워크—초기 《申報》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75집, 한국중국문학회, 2013.
- 양일모, 「근대 중국의 서양학문 수용과 번역」, 『시대와철학』 제15권 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4.
- 오세진 외, 『인간행동과 심리학』, 학지사, 2005.
- 왕귀웨이 著, 류창교 옮김, 『정암 문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14.

- 이경자, 「중국 미션계 학교의 발전 과정」, 『중국학논총』 제45집, 중국학연구소, 2014.
- _____, 「청말 선교사들의 교육활동」, 『중국학논총』 제49집, 중국학연구소, 2015.
- 이대승,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인의 서구 심리학 수용—니시 아마네와 연용징의 ‘mental philosophy’·‘psychology’ 번역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98집, 한국동서철학회, 2020.
- 임려, 「근대기 중국 기원 신생한자어의 한국어 유입과 정착 : 로브사이트의 『英華字典』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조경란, 『중국 근현대 사상의 탐색』, 삼인, 2003.
-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50년사』, 교육과학사, 1996.
- 한규석, 「한국적 심리학의 전개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1권 2호, 한국심리학회, 2002.
- 한덕웅, 『한국유학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3.
- 謝維揚·房鑫亮 編, 『王國維全集』 第17卷, 浙江教育出版社·廣東教育出版社, 2009.
- 聶長順, 「花之安《德國學校論略》所定教育術語及其影響」, 『人文論叢』, 2009.
- 孫小蕾, 「顏永京對近代西學傳播的貢獻」, 『國際漢學』 2019(04), 2019.
- 楊鑫輝·趙莉如 主編, 『心理學通史 第2卷: 中國近現代心理學史』, 山東教育出版社, 1991.
- 閻書昌, 「晚清時期執權居士創制“心理(學)”一詞的考察」, 『心理學報』 50(8), 河北師範大學心理學系, 2018.
- _____, 「服部宇之吉의《心理學講義》」, 『心理學報』 41(5), 中國心理學會, 2009.
- _____, 「顏永京對西方心理學引入及其漢語心理學術語創制」, 『南京師大學報』 2012(04), 2012.
- _____, 『中國近代心理學史(1872—1949)』, 上海教育出版社, 2015.
- 汪鳳炎, 「漢語“心理學”一詞是如何確立的」, 『心理學探新』 35(3), 2015.
- 王成禮, 「中文心理學術語特點和英譯策略」, 『中國科技術語』 2013(04), 2013.
- 王揚宗, 「赫胥黎《科學導論》的兩個中譯本: 兼談清末科學譯著的準確性」, 『中國科技史料』 21, 2000.
- 張品興 主編, 『梁啟超全集』 第1卷, 北京出版社, 1999.
- 張洪萍·胡韜, 「服部宇之吉與京師大學堂師範館」, 『貴州師範學院學報』 30(7),

貴州師範學院, 2014.

趙莉如, 「關於“心理學”名稱在中國何時開始使用問題的修正和補充」,

『心理學報』1992(2), 1992.

_____, 「有關心靈學一書的研究(1)」, 『心理學報』1983(4), 1983.

_____, 「中日心理學史上的早期聯系與交流」, 『心理學報』1991(2), 1991.

佐藤達哉 編, 『(通史) 日本の心理学』, 北大路書房, 1997.

佐藤達哉, 『日本における心理学の受容と展開』, 北大路書房, 2002.

Abstract

Changes in the Acceptance of Western Psychology in Modern China

-Focus on psychological contents and language change before and after Wuxu Reform

戊戌變法-

Lee, Dae-Seung*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s in the acceptance of Western psychology in modern China before and after the Wuxu Reform.

Before the Wuxu Reform, psychology as a mental philosophy was accepted by some American missionaries. Except for "Linghun xue 靈魂學", "Xinling xue 心靈學", psychological terms usually feature words based on traditional Confucian ideas such as "Xinxing xue 心性學", "Xing xue 性學", "Xin xue 心學." Approximately during Wuxu Reform, Kang Youwei 康有爲 and Liang Qichao 梁啓超 accept the Japanese translation term "Shinrigaku 心理學" and pursue the translation of Japanese books. Since then, "Xinli xue 心理學" has been widely used as a translation word for "psychology" and scientific new psychology in the West has been accepted and widely spread in China in various ways through Japan.

In conclusion, the trend of accepting psychology as a mental philosophy in China changes to the trend of embracing modern scientific new psychology after Wuxu Reform. In addition, psychological translation is mainly based on traditional Confucian concepts, and the term "Xinli xue" accepted from Japan after Wuxu Reform is widely accepted.

【Key words】 Shinrigaku, Xinli xue 心理學, mental philosophy, modern scientific psychology, translation word, Wuxu Reform 戊戌變法

* Research Prof. Jeonju University

** 논문접수일: 2020. 12. 24. 논문심사기간: 2021. 01. 05. ~01. 17. 게재확정일: 2021. 01. 29.